

##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며

정 명 현

의학교육학과 소식지를 창간하며 첫 번째로 교수 칼럼을 쓸 기회를 의뢰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여, 글쓰기를 무척 어려워하는 나로서도 거절할 수 없었다. 기껏 살아야 100년에도 훨씬 못 미치는 평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감히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며”라는 거창한 제목을 받아놓고 앉아 있으니 도무지 무엇을 써야 할지 시작부터 할 수가 없었다.

용단을 내려 평소에 알고 있고 느끼는 대로 우리의 의학교육이 나아 가야할 점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을 선발할 때는 알량한 지식의 양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인성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하며 희생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본인이 의업에 평생을 종사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학제 또한 현행 6(2+4)년 제를 8(4+4)년 제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계획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4+4로 갈 것이 아니라 일차 진료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6년 제를 그대로 두고 시대적 요구에 맞고 다양한 배경을 갖춘 전문의료 인력이나 의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4+4년 제를 도입하여 병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학교는 이미 2+4와 4+4를 병행하여 의사가 되기 위한 경로로 의예과를 통한

본과 진입과 학사편입제도와 복수전공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지속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세대학은 유일하게 한 대학에 두 개의 의과대학이 있는 경우로 아직까지는 두 의과대학이 유사한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을 통해 임상의사의 양성에 큰 비중을 둔 교육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 의과대학은 기초의학을 더욱 강화하여 의과학자나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또 하나의 의과대학은 일차진료를 위주로 하는 임상 의학을 강화하여 학부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간은 학부중심은 대학 6년 제로 하고 대학원 중심대학은 8년 제로 하여 교육목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원화하여 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학생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교 마다 특성과 전통을 중요시하여 대학의 주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의 자율권이 전적으로 대학교 측에 주어져야 한다.

요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돌변하는 세상으로 의학교육 목표나 방법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합당하고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의학교육의 목표는 임상의사의 양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종합적인 응용과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영학, 법학, 공학 등의 통합적인 지식을 갖추어 졸업 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의사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겠다.

의학교육 방법 또한 강의와 실습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 학생의 진로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과목을 중심으로 하여 환자 진료에 적응하기 쉽도록 문제중심학습을 하도록 하고 선택과정을 통해 폭 넓은 교육을 하도록 한다. 교육방법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학습의 평가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적용해야 한다. 교육기간 중의 평가는 물론 의사국가시험 방법도 적극적으로 개선되어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 이외에도 환자와 의사간의 의사소통 기술, 의료보험

제도, 의료법 등에 익숙한지 고르게 평가하고, 평가시기도 시간적 차이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기초의학(2학년 수료)과 임상의학(4학년 수료) 시험에 통과하면 지도 감독자의 관찰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를 주어 진료행위를 허락하고 실무를 익힌(인턴 수료) 후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를 주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좋고 새로운 의학교육 목표나 방법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며, 교수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 또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 졸업 후에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배움의 의지가 없이는 교수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터득하지 못하고 그저 점수나 받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졸업 후 교육이 점차 강조되는 새로운 세기에 적응하는 유능한 의사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의사들 중에도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나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거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존경받기 보다는 지탄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는 의학교육 내용 중에 환자들과의 대화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이 부족하거나 인성과 윤리교육을 등한시 하였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의학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목을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중에 선배 의사나 교수들은 술선 수범을 보여 학생들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 의사가 된 후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부터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인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표와 방법에도 많은 발전이 거듭되어 왔다. 그러나 요즘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고 함) 강의나 실습시간에는 학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겸손(?)하게 행동하나 일단 강의실을 나가면 소 닭

보듯 교수들은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한 교수들도 진료와 연구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식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과 애정을 보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수는 많으나 진정한 의미의 존경 받는 스승이 적다는 비판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대나 사회가 변하고 의학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변할 지라도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마음가짐과 배우는 학생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의학교육의 새로운 천년은 우선 의학교육은 임상의학의 양성이라는 틀을 깨고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기본 지식을 폭 넓게 가르치기 위해 특성화된 교육목표를 개발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생선발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의 수립에도 특이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다 효과적인 문제중심 학습방법과 근거 중심 의학을 도입하여 졸업 후 자발적으로 학습을 지속하여 새로운 의학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며 의사와 의학교육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바램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수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공부하며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여 직업에 종사함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교수들과 학생들, 또 의료 수혜자와 기타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 의료법 등에 익숙한지 고르게 평가하고, 평가시기도 시간적 차이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기초의학(2학년 수료)과 임상의학(4학년 수료) 시험에 통과하면 지도 감독자의 관찰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를 주어 진료행위를 허락하고 실무를 익힌(인턴 수료) 후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를 주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좋고 새로운 의학교육 목표나 방법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며, 교수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 또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 졸업 후에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배움의 의지가 없이는 교수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터득하지 못하고 그저 점수나 받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곤 한다. 졸업 후 교육이 점차 강조되는 새로운 세기에 적응하는 유능한 의사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의사들 중에도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나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거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존경받기 보다는 지탄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는 의학교육 내용 중에 환자들과의 대화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이 부족하거나 인성과 윤리교육을 등한시 하였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의학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목을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중에 선배 의사나 교수들은 술선 수범을 보여 학생들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 의사가 된 후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부터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인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표와 방법에도 많은 발전이 거듭되어 왔다. 그러나 요즘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고 함) 강의나 실습시간에는 학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겸손(?)하게 행동하나 일단 강의실을 나가면 소 닭

보듯 교수들은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한 교수들도 진료와 연구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식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과 애정을 보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수는 많으나 진정한 의미의 존경 받는 스승이 적다는 비판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대나 사회가 변하고 의학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변할 지라도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마음가짐과 배우는 학생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의학교육의 새로운 천년은 우선 의학교육은 임상의학의 양성이라는 틀을 깨고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기본 지식을 폭 넓게 가르치기 위해 특성화된 교육목표를 개발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생선발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의 수립에도 특이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다 효과적인 문제중심 학습방법과 근거 중심 의학을 도입하여 졸업 후 자발적으로 학습을 지속하여 새로운 의학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며 의사와 의학교육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바램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수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공부하며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여 직업에 종사함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교수들과 학생들, 또 의료 수혜자와 기타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 의료법 등에 익숙한지 고르게 평가하고, 평가시기도 시간적 차이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기초의학(2학년 수료)과 임상의학(4학년 수료) 시험에 통과하면 지도 감독자의 관찰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를 주어 진료행위를 허락하고 실무를 익힌(인턴 수료) 후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를 주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좋고 새로운 의학교육 목표나 방법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며, 교수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 또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 졸업 후에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배움의 의지가 없이는 교수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터득하지 못하고 그저 점수나 받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졸업 후 교육이 점차 강조되는 새로운 세기에 적응하는 유능한 의사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의사들 중에도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나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거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존경받기 보다는 지탄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는 의학교육 내용 중에 환자들과의 대화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이 부족하거나 인성과 윤리교육을 등한시 하였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의학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목을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중에 선배 의사나 교수들은 술선 수범을 보여 학생들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 의사가 된 후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인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표와 방법에도 많은 발전이 거듭되어 왔다. 그러나 요즘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고 함) 강의나 실습시간에는 학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겸손(?)하게 행동하나 일단 강의실을 나가면 소 닭

보듯 교수들은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한 교수들도 진료와 연구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식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과 애정을 보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수는 많으나 진정한 의미의 존경 받는 스승이 적다는 비판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대나 사회가 변하고 의학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변할 지라도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마음가짐과 배우는 학생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의학교육의 새로운 천년은 우선 의학교육은 임상의학의 양성이라는 틀을 깨고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기본 지식을 폭 넓게 가르치기 위해 특성화된 교육목표를 개발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생선발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의 수립에도 특이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다 효과적인 문제중심 학습방법과 근거 중심 의학을 도입하여 졸업 후 자발적으로 학습을 지속하여 새로운 의학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며 의사와 의학교육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바램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수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공부하며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여 직업에 종사함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교수들과 학생들, 또 의료 수혜자와 기타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